

폴란드에서 한국학 교육의 어려움과 발전 방안

오경근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츠 대학교)

okg615@yahoo.co.kr

1. 서론

‘세상은 하나이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모두 다 똑같다’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한다. 그것은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로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혹자는 그 말에 동의할 것이며, 또 다른 누구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를 바랄 것이며,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개성을 갖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우와 사정에 따라 ‘그도 똑 같은 사람이다’ 혹은 ‘그는 매우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또한 개인도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 서로 간의 동질감과 일체감을 느끼며 그 속에서 삶의 안정을 찾으려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론 자기만의 특성 혹은 유일함을 간직하고 고수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때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을 빚기도 한다.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문화 공동체들 간의 관계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인 그리고 동양인으로서 유럽의 폴란드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는 유럽인-폴란드인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면서, 처음 공부를 시

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과연 한국인과 폴란드인 그리고 동양인과 서양인은 정말로 같은 사람들인가, 다르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하고 또한 다르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인가, 또한 동서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은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들에 관해선 이미 각 분야에 걸친 많은 동-서양의 전문 학자들이 연구를 통한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쳐놓고 있다. 기계와 첨단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하여 서로간의 왕래와 교섭이 빈번하고 용이해 졌으며, 위성TV와 인터넷 등으로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해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세계화'는 현재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에 국한되어 있을 뿐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진정한 '세계화'는 어느 한 강대국의 문화적 제국주의에 의한 강요 혹은 그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문화와 전통을 동등하게 존중하여 이해하는 데 있다고 할 때, 아직도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고도 험난하다.

따라서 본인은 학술적인 논지를 떠나 폴란드 현장에서 한국학을 교육하면서 실제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폴란드와 한국 간의 문화적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차이 혹은 그에 대한 상호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폴란드에서의 한국학 교육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논해 보고자 한다.

2. 아담 미츠키에비츠 대학교 한국학 교육 현황

2. 1. 학교 및 학과 개관

폴란드 서부의 중심도시 포즈난(Poznań)에 위치한 아담 미츠키에비츠 대학교(Uniwersytet im. Adama Mickiewicza)는 이

미 16세기부터 존재하였으나, 1918년 1차 세계대전 후에 새롭게 발족한 대학으로서 현재 재학생수가 약 50,000여명에 달하는 국립종합대학이다. 수도 바르샤바(Warszawa)의 바르샤바대학교, 그리고 크라쿠프(Kraków)의 야기엘로니안 대학교와 더불어 폴란드의 3대 대학 중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한국과 폴란드 간의 급속한 경제교류의 발전에 따라, 특히 폴란드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본 대학교의 현대어문학부 소속인 언어학연구소는 양 국가 간의 경제교류에 필요한 인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어, 문학, 그리고 사회와 문화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여 광범위하고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에 대비하고자, 1998년 10월에 외부로부터의 아무런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 5년 과정의 한국학 석사과정으로 정식 발족하였고, 또한 동시에 한국어는 민족언어학과의 학생들도 전공언어로 선택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5년 동안 매주 8시간씩 한국어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였다.

그러나 2007/08학년부터 유럽연합의 대학교육시스템에 의하여 3년의 학사과정이 신설되어, 현재 1, 2학년들이 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며, 3~5학년들은 기존의 5년 석사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비록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사과정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석사과정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3년의 학사과정이 충분한 한국어 능력 배양과 한국학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2008/09학년도부터 박사과정도 개설되어 석사과정 졸업생 중 2명이 진학하였다.

한국학과는 매년 약 20여명의 신입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경쟁률은 7~10:1을 유지하고 있다. 교강사는 폴란드인 4명(박사과정 2명 포함)과 한국인 4명(2008/09년 2학기부터는 1명이 더

추가될 예정임)이다.

2. 2. 한국학 교육현황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할 기타 다른 과목들을 제외한 한국어와 한국학에 관한 과목들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학사과정

* 1학년

- 1) 실용한국어: 1~2학기, 300시간, 22 ECTS 학점
- 2) 한국학 입문: 1학기, 30시간, 2 ECTS 학점

* 2학년

- 1) 실용한국어: 1~2학기, 300시간, 22 ECTS 학점
- 2) 한국어 기술문법: 1~2학기, 60시간, 10 ECTS 학점
- 3) 한국문학사: 1~2학기, 60시간, 10 ECTS 학점
- 4) 한국사: 1학기, 30시간, 2 ECTS 학점
- 5) 현대 한국사회의 실상: 1학기, 30시간, 2 ECTS 학점

* 3학년

- 1) 실용한국어: 1~2학기, 240시간, 18 ECTS 학점
- 2) 한국어 기술문법: 1~2학기, 60시간, 8 ECTS 학점
- 3) 한국어사: 1학기, 30시간, 2 ECTS 학점
- 4) 비교문법: 1학기, 30시간, 2 ECTS 학점
- 5) 한-폴 번역: 1학기, 30시간, 2 ECTS 학점
- 6) 폴-한 번역: 1학기, 30시간, 2 ECTS 학점
- 7) 한국문학사: 1~2학기, 60시간, 6 ECTS 학점

- 8) 한국 문화: 1~2학기, 60시간, 2 ECTS 학점
- 9) 학사과정 세미나: 1학기, 30시간, 8 ECTS 학점

B. 석사과정

* 4학년

- 1) 실용한국어: 1~2학기, 240시간, 22 ECTS 학점
- 2) 한국어 기술문법: 1~2학기, 60시간, 8 ECTS 학점
- 3) 한국어사: 1학기, 30시간, 2 ECTS 학점
- 4) 한국 문화: 1학기, 30시간, 2 ECTS 학점
- 5) 석사과정 세미나: 1~2학기, 60시간, 12 ECTS 학점

* 5학년

- 1) 실용한국어: 1~2학기, 120시간, 24 ECTS 학점
- 2) 폴-한, 한-폴 번역: 1학기, 30시간, 2 ECTS 학점
- 3) 전공 특별 강의: 1~2학기, 60시간, 4 ECTS 학점
- 4) 석사과정 세미나: 1~2학기, 60시간, 30 ECTS 학점

학사과정과 석사과정 공히 졸업시험과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3.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은 일반적으로 저학년, 즉 1, 2학년은 문법 설명과 어휘의 뜻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폴란드 현지인 혹은 폴란드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 강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고학년들은 회화와 다양한 업무수행능력의 고양을 위하여 한국인 선생님들에 의해 주로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학년 처

음부터 한국어로만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지만, 본 언어학연구소에서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 언어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며, 또한 국내의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전문 언어교육원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인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중-동유럽에서의 한국학의 위상은 서유럽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유럽에서 한국학을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중-동유럽의 학생들이 한국학을 학업 후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직장을 얻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따라서 그에 대한 보다 진지한 자세와 높은 열정을 갖고 있기에 그렇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제 폴란드의 대학들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배논리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든 학생들이 전공이 한국학이라 하여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럴 수도 없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각 학년별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다. 그것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어과 학생들은 모두가 폴란드어를 잘하고 그래야만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이다. 스스로 자신이 정한 목표와 굳은 각오를 갖고 큰 비용도 감소하면서 어학원에 등록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그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차별적이고 뚜렷한 그룹으로 배분을 하여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하는 어학원과 일반 대학 학과에서의 교육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어 교육자들 간에 수업방식과 학생 평가에 있어서 종종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지 사정, 학생들의 자질과 수준, 그리고 교육자의 높은 열정과 노력 등의 적절한 조합이 요구된다.

한국어 교재로는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주로 한국 대학의 어학원에서 발행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바르샤바대학교에서 만든 한국어 교재는 폴란드어로 문법과 어휘들의 설명이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혼자서 자습하는데는 유용하지만 수업 교재로는 적절하지 않기에 활용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 폴란드 현지에 맞는 다양하고 훌륭한 교재 개발에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어학원, 바르샤바대학교 한국어과 그리고 아담 미츠키에비츠 대학교의 한국학과가 공동으로 한국어 교재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문법 위주로 할 것인가, 혹은 회화를 비롯한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다. 전통적으로 폴란드 대학에서는 아직도 전자를 선호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후자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자세한 언급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다.

4. 한국문학 교육

예외인 경우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특정한 민족의 문학은 그 나라 혹은 민족의 작가가 자기네 사람들을 독자로 하여 쓴 것이다. 따라서 소위 '국문학' 속에는 자기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단지 무미건조한 내용의 전달이 아니라 문학적 예술성과 민족적 혹은 향토적 정서 표출의 극대화를 위해 자신들만의 특이한 표현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하며, 언어도 고전문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표준어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문학이 자기 민족의 삶을 다룬다고 할 때, 거기에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종교, 역사, 철학 등등 그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어느 민족의 문학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삶을 총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며, 역으로 외국인들에게 자기 민족의 문학을 가르

친다는 것은 자기 민족의 총체적인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외국인으로서 문학 공부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문학 교육의 어려움이 있다.

우선 문학은 그 난이도를 제켜놓더라도 외국인이 공부하기에 다른 학문들보다도 분량 면에서 가장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도 문학을 공부하러 폴란드에 처음 왔을 때, 대학 측으로부터 다른 분야는 모르겠으나 문학은 비록 정규과정의 수업들을 무사히 마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실망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의미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외국문학을 전공하기 위해 유학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그와는 상황이 매우 다른 일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문학교육이다.

해외에서 한국문학 교육은 대부분 한국학과 수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한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한국문학 전공 수업이 따로 있는 경우는 없고, 다만 논문준비 세미나를 통하여 그에 대한 학위 논문을 쓸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수업 시간도 한국어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 아담 미츠키에비츠 대학교 한국학과와 경우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학 교육의 첫 번째 어려움은 부족한 수업 시간이고, 그 다음은 학생들이 한국어로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석사과정의 경우 한국문학 수업이 고학년이 아닌 2, 3학년에 배정되어 있다는 것이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미 유럽연합 교육시스템에 의한 3년제 학사과정의 경우엔 달리 방법도 없다. 국내의 일부 한국학자들은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연구 성과의 저조를 논하는 가운데 외국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 학자들의 전문적인 식견의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일단 동의는 하면서도

그것이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발전의 주요 저해요인이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연구에는 해당 국가의 한국문학 전공학자들이 스스로 앞장서고 노력해야 하며, 한국인이 주도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실제적인 효과이다. 아무리 한국문학에 정통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현지어 구사능력 없이, 또한 한국문학 작품을 원어로 읽을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 영어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문학을 모국어도 아니고 원어도 아닌 제3의 언어로 가르치고 배울 때 그 학습효과는 당연하다 하겠다.

폴란드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폴란드어로 된 한국문학사 교재를 개발하는 것인데, 기초지식 전달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학술적 내용과 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국문학 작품들의 폴란드어 번역이다. 문학작품의 번역에 있어서 독자들은 해외 시장에서의 인기와 상업성을 고려하여 해외인지도가 높거나 현대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적극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교육적인 면에서는 그러한 것보다도 한국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고전들과 대표작들의 번역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한국문학번역원 등 기타 한국의 기관들로부터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5. 한국의 역사-정치 교육

폴란드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정치를 교육하는 데는 장점과 단점이 고루 있다.

장점으로는 일단 아시아에서의 한국과 유럽에서의 폴란드의 지정학적 요인들에서 기인된 역사-정치적 상황의 유사성에 있다.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으로서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고전분투해야 했던 한국과 마찬가지로 폴란드도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합스부르크 제국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간섭을 받아야 했던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호 상대방의 지난 역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은 매우 넓다. 다만 공히 역사적, 정치적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지나친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역사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과 평가에 있어서 저해 요소로 등장한다.

특히 현대사의 경우 한반도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분단되어 오늘날까지도 냉전이 지속 중이고, 폴란드는 사회주의를 경험하였으나 지금은 완전히 독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또한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유사 이래로 가장 큰 중흥기를 맞고 있다는 상황이 상호간 이해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한국은 북한과는 정치-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 식민지 지배를 당한 이유로 선과 악의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해 있고, 폴란드는 사회주의의 아픈 경험으로 인해 지극히 친서방, 친미 경향으로 기울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젊은 폴란드 학생들은 남북관계, 한일관계, 한미관계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으며, 한국인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기 힘든 실제적 한계가 있다. 특히 학생들 중에는 가끔 북한에 관한 논문을 쓰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가능여부를 떠나 제대로 된 지도와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폴란드에서의 한국의 역사와 정치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한국인 교육자의 투철한 교육정신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 혹은 프로파간다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학자적 양심과 끊임없는 연구

를 통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6. 한국의 사회-문화-종교 교육

한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종교는 개항 이후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특히 경제 개발 이후의 급격한 변화를 겪음으로써 전통적인 것과 외래의 것들이 함께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폴란드 학생들에게 명확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교육하기 힘들며, 학생들이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아마도 한국인으로서 폴란드에서 한국학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테마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 학자들은 한국전통문화와 사상의 특징과 장점으로 관용과 포용 그리고 조화를 말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특히 전통적으로 기독교를 문화적 근간으로 하고 앞선 기술 문명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럽인들은 동양, 더군다나 한국은 나름대로의 확고하고 체계적인 사상과 문명이 결집되어 그러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즉 유럽인으로서 동양인과 동양문화에 대한 우월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폴란드는 유럽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가톨릭 국가라고 자부한다. 학생들은 종교적 문화적인 면에서 세계의 기독교화와 서구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그와 반대의 경우는 생각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 중국과 북한, 이슬람 등에서 기독교 전파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는 매우 흥분하면서도, 폴란드 내에서의 종교적 불관용에 대해서는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폴란드 학생들은 무속에 대해서도 거의 무조건적인 거부반응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실제로 폴란드의 가톨릭은 민간의 민속적-무속적인 요소들과 오랜 세월을 걸쳐 서로 혼합되고 융합되어 하나로 어우러져 있

음에도 말이다.

무속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행복과 무병장수 그리고 삶의 풍요를 기원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심리를 바탕으로 한 의례 행위로서 세계 모든 종교들의 원천이며, 인간, 사물, 인간세계, 사후세계 등 우주 삼라만상과의 가장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직도 무속적인 요소들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기독교와 이성적 합리적 사고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한국인 스스로 민족종교들과 무속적인 것들을 단지 멸시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계의 역사, 특히 유럽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인간의 삶과 행복의 증진에 과연 얼마만큼 공헌하였는지, 또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비유럽권 세계를 앞선 기계문명과 자본으로 종속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인간 스스로에 의해 인간과 지구의 생존마저 위기에 처하게 만든 사실들에 대해 공정하게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폴란드 학생들이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 혹은 편견은 예상외로 심각한 편이다. 한국인들 중에서도 유교가 조선왕조 멸망의 주요인이었으며 선진사회로의 발전에 있어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폴란드 학생들은 유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국인들의 행동양식마저도 그것의 영향이라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다. 예를 하나 들면, 단지 대학 강의실에서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앉아 있는 것뿐인데 그것을 유교의 영향이라 생각하면서, 정작 폴란드 대학에서도 수업시간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또한 한국인과의 관계에서도 지극히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혹은 사건을 통하여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또는 신문방송을 통하여 한국과 한국인에 관한 불미

스러운 소식을 접하였을 때, 그 구체적인 사람과 사건에 집중하여 평가하기보다는 '한국사람들은 원래 다 그렇다'라고 치부하려 든다. 그리고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학생들이기에 당연한 것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학연수 등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도 폴란드인과 한국인의 공통점보다는 본인의 눈에 비치는 뭔가 다른 것들을 열심히 찾아 한국인과 폴란드인은 역시 다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려 한다.

따라서 폴란드에서 한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종교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선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에 그쳐서는 안 되고, 또한 마치 한국문화의 홍보처럼 비춰져서는 더욱 안 되며, 양쪽 모두에 관한 깊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에 존재하는 편견과 잘못된 인식들을 올바른 자료와 논거로써 불식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평가와 비교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다.

7. 맺음말

한마디로 한국인으로서 해외에서 한국학을 효과적으로 또한 심도있게 교육하는 것은 힘들고도 외로운 일이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실생활 등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거기에 더하여 자국의 것들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또한 그에 대한 건전한 비판적 시각도 겸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의 진정한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선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학이 단지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 혹은 흥미거리가 아니라, 한국의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를 앎으로써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즉 그를 통하여 한국과 한국인은 더 이상 낯설고 먼 나라와 사람들이 아

나라, 자신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됨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이 동기부여이다. 따라서 어학연수, 학생교환, 학술교류, 문화행사 등을 통해 한국인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장비와 인터넷 등을 통한 21세기 신세대에 알맞은 교수방법도 계속 개발해야 하며, 특히 학사는 물론 석사와 박사학위 논문 작성 그리고 한국학 연구를 위한 필요한 충분한 자료와 서적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